

# “미래먹거리·균형발전...생동하는 행복무안 만들겠다”

## 김산

### 무안군수

민선 7기 더 큰 무안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김산 무안군수는 ‘대전환 시대 중단없는 무안 발전’을 바라는 9만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민선 8기에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도농균형 발전을 균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임기동안 역점으로 시행해 온 많은 사업들을 연속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첨단농업복합단지·K푸드융복합산업단지 조성, 무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임기 내 마무리함과 동시에 민생을 꼼꼼하게 챙겨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 무안’ 실현에 나선다.



#### 주요 공약

-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무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전 2040 무안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대응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성동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모두누리 열린 숲 조성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오룡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도리포 관광영화사 사업 ▲환경클린센터 공사 ▲백련지 수목원 조성사업 ▲남악 모두누리 열린 숲 조성사업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 김산이 걸은 길

- ▲목포대 졸업 ▲무안군 승달장학회 이사 ▲무안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 자문위원 ▲무안신문 자문위원 ▲제5대 무안군의원 ▲제6대 무안군의회 전반기 의장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위원회 자문위원 ▲민선7기 무안군수

◇첨단 항공정비 중심지 도약  
지금 무안국제공항 주변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으며, 활주로 연장과 KTX 노선 경유로 공항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무안군은 공항 주변 인프라 확장에 발맞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 항공정비(MRO) 등 각종 항공관련 업종이 입주하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항공특화산단의 약 15만㎡의 부지에 입주 예정인 무안에어로테크닉스에서는 무안이 항공정비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항공정비 그룹인 에이브이아 솔루션 그룹의 FL 테크닉스사와 운영 및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항공기 정비장과 계류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연계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최근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몽골 울란바토르 등 동남아 3개국 6개 노선 운항이 시작되고 김포, 제주노선이 증편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무안국제공항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무안군은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해 체류형 숙박시설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관광흐름에 맞춰 선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영산강 권역과 해안선 권역 등 권역별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산강권역은 화산백련지 내 전국 최초 호소습지형 수목원 조성, 열차여행 테마관광 개발, 도자 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 성지로 조성하고 해안선 권역은 도리포와 황도갯벌랜드를 중심으로 갯벌과 바다, 해안 길을 잇는 해양관광 벨트로 새롭게 구축한다.

◇균형있는 도농개발로 상생 도모  
김산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개발을 통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원도심·신도시 간 상생을

공항 주변 인프라 확장 항공정비 메카 선형 관광 전환 도모...관광벨트 조성 원도심·신도시 상생 활성화 동반 성장 과학영농 구현·6차산업화 기반 구축 명품 숲 조성사업...인간·자연 공존도

도모하고 주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8기 군정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낙후된 원도심과 농촌지역은 도시 수준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남악·오룡신도시는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가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348억 9,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을 지역에 공공도서관, 작은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꿈틀이 복합센터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LH행복주택 건립, 집수리 지원 등이 이뤄지고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을 뿐만 아니라 각 읍면 지역에도 복합문화센터 건립, 주민 역량강화활동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확대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도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오룡신도시도 단순히 배후도시 기능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적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전남의 수도다운 도시로 조성한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 기반 구축  
현재 무안을 비롯한 농촌지역은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영농을 구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44억 원을 투입해 현경면 일원에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고구마 공동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무안의 융복합 산업을 견인할 전문인력 양성과 고구마와 단호박의 가공산업화, 유통지원, 마케팅에 이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31억 6,000만원을 투입해 5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정책 방향을 동물복지·환경친화형 축산업으로 전환하고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체계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축종별 기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수산업을 위해서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결과 총 8개항이 선정돼 사업비 62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족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지산란 서식장 조성, 수산종자 매입 방류,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도리포에는 수산물 위판장과 연계한 수산 복합 회센터를 건립해 지역 소득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살기좋은 도시 구현  
무안군은 환경을 우선하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고 자연과 숲에 대한 주민들의 녹색 욕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명품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안을 성동저수지 일원에 숲과 테마정원 등을 조성하는 성동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전남도청 인근 남악호수에 열린 숲을 조성하고 오룡산 주변에 계단 없는 등산로와 상록수로 이뤄진 들레길을 만드는 모두누리 열린 숲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숲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도심 속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일로를 사교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무안을 창포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ICT기반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한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방범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CCTV 영상정보를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이다.

김산 군수는 “민선7기 4년 동안 군민들과 함께 쉽지 않았던 결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최고의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며 “민선 8기에는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무안을 더 크게, 더 삶을 더 높게’라는 약속을 실현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쳐 군민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가시적인 성과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왼쪽부터)  
▶김산 군수가 안전한 등교맞이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김산 군수가 망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산 군수가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 설명을 듣고 있다. /무안군 제공

